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 세계기록유산보존시설 확충 |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광주시, 인수위에 5·18 현안 건의

'5·18 정책연구 TF' 전략 논의
국정과제 반영 추진 상황 보고
42주년 기념식 추진계획도 논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세계기록유산보존시설 확충, 옛 광주교도소 부지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광주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5·18 현안으로 건의할 내용이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5·18정책연구 TF'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5·18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기념파크 국가사업화'의 여론조성을 위해 전격적으로 옛 광주교도소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TF팀은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5·18 현안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사항으로 제시한 광주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당선인이 광주 방문시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숭고한 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해 광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민주화 상징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약속사항에 초점을 맞춰 건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TF팀은 5·18사적지이자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을 민주인권기념공간으로 조성해 국민통합의 계기로 마련하기 위해 옛 광주교도소 부지(8만 9821㎡)에 국가사업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5·18 사적지로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단순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체계적인 국가사업으로써 민주인권파크를 조성, 5·18역사체험·전시와 국제 인권도시 교류·교육 공간으로의 활용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정신을 인류와 공유·연대할 수 있도록 5·18정신 헙법전문 수록을 비롯해 280억 원 규모의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342억 원 규모의 5·18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설 확충뿐 아니라 5월 18일을 '세계 군사·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제정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불의에 항거한 5·18정신의 바탕에서 6월항쟁과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시대를 열게 된 시대적 상황을 헌법전문에 수록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가치를 명확히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5·18은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알렸고, 대한민국 문명·인권·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거사였다"고 수차례 언급하며,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점도 제안의 한 이유다.

광주시는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최근 면담을 갖고, 국가가 과거의 국가폭력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세대에게 5·18의 역사를 소중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행사의 완성도나 참여인원도 중요하지만, 격변의 시기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오월광주는 평등·평화의 메시지를 강력히 전파해 다시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이 제안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중흥도서관 개관했어요 광주 북구 중흥도서관 개관식이 지난 31일 오후 열렸다. 1층 어린이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진압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취소

구금·고문에 강제 퇴직 인정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의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강경진압지시 거부로 강제퇴직 당한 것이 인정된 것이다.

지난 31일 '안병하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안 치안감에 대한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한다고 지난 24일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날 오후 안 치안감의 유족인 호재씨는 진교훈 경찰청 차장을 만나 취소내용을 전달받았다. 안 치안감은 지급되지 않은 급여도 지급받게 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 100개월분을 지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25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강경 진압 요구에 "경찰이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광주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 일로 5월 26일 직위해제된 안 치안감은 "지시에 불복했다"며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을 당했다. 안 치안감은 6월 2일 의원면직된 후 석방됐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1988년 10월 10일 명을 달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현대산업개발 건설업 등록 말소하라"

광주 시민단체 "붕괴 참사 주범 영구 퇴출" 서울시에 건의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1일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화정동 참사 주범, 현대산업개발을 건설업계에서 영구 퇴출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학동참사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치면서도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1년'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후에 내려진 늦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영업활동과 안전을 도외시한 부실공사가 방치됐다는 점에서다.

대책위는 "지난 29일 현대산업개발의 주주총회에서 학동과 화정동 참사의 책임 이사의 퇴진과 해임에 대한 요구가 거부됐다"면서 "품질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사외이사의 선임도 외면하고 ESG 경영에 대한 제안도 내팽개치면서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점 등은 자정의 의지를 비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꿀벌 질병검사 서비스 강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꿀벌이 사라지는 등 봉군 붕괴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위해 꿀벌 질병검사 서비스를 강화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꿀벌 질병검사로 당초 2~11월까지 민원 의뢰를 받은 검체에 대해 검사를 했지만, 올해는 아카시아 꽃이 피기 전 4월 중에 광주지역 100여 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실시해 질병 발생이 의심되는 양봉농장을 담당 수의사가 방문해 검사한다. 사양 관리로 검사가 필요한 농가는 언제든지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월동 직후부터 꿀벌 집단 폐사나 사라지는 현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양봉 농가로부터 꿀벌질병검사 의뢰를 받아 검사한 결과, 응애류에 의해 매개되는 날개불구바이러스 감염증과 검은여왕벌방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벌이 벌집 앞에서 기어다니다가 폐사하는 증상을 보이는 진균성 질병인 노제마증도 확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서구 '워크온' 앱으로
일상 속 걷기 실천하세요

광주 서구가 구민들의 일상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걷기 사업의 일환으로 걷기 앱(App)인 '워크온' 운영에 들어갔다.

'워크온'은 서구민이면 누구나 간단한 회원가입 후 걷기 챌린지에 참여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걸음수, 수면시간 등 신체활동량 측정은 물론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비만예방과 식이요법 등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걷기 앱이다.

서구는 서구민들의 워크온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가입 이벤트와 함께 4월 '3만보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워크온 가입 이벤트는 4월부터 5월 말까지 워크온 '광주 서구 커뮤니티' 신규 가입자 중 200명을 추첨할 계획이다.

또한 4월 '3만보 걷기 챌린지'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총 3만보(1일 1만 5000보 제한)를 달성한 구민 중에서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궁금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건강정책팀(062-350-475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